

제 1 교시

국어 영역(B형)

출수형

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기자회견장에 **평가원장**이 속살거리
정시 합격은 남의 얘기

재수생이란 **슬픈 천명**인줄 알면서도
한줄 시를 적어볼까

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
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

EBS 수능특강을 끼고
늪은 강사의 강의를 들으러 강대에 간다

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를
하나, 둘 죄다 잃어버리고

나는 무얼 바라
나는 다만, 홀로 **침전**하는 것일까?

대학은 가기 어렵다는데
수능이 이렇게 **쉽게 썩여**지는 것은 **부끄러운 일**이다

서울대는 남의 나라
TV에 어용 기자회견이 속살거리는데

수능의 본질을 밝혀 요행을 조금 내몰고
시대처럼 올 **불수능**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

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
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**최초의 악수**

- 재수생, 「쉽게 내어진 수능」 -

1. <보기>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[3점]

—<보 기>—

『쉽게 내어진 수능』은 당시의 혼란한 입시 시대상을 드러낸 작품이다. 이 작품의 화자는 암담한 수험생활 속에서 무기력하게 침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.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화자는 좌절하지 않고, 소망하는 세상을 기다리며 내면적 평안을 성취한다.

- ① ‘슬픈 천명’은 외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화자의 ‘재수생’ 신분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군.
- ② ‘정시 합격’과 ‘서울대’는 화자가 ‘수능’을 통해,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군.
- ③ ‘수능’이 ‘쉽게 썩여지는 것’이 ‘부끄러운 일’이라는 평가로 보아, 화자는 시대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군.
- ④ ‘기자회견장’의 ‘평가원장’은 외면적 혼란을 도래해, 화자가 ‘침전’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군.
- ⑤ 화자는 ‘나’에게 건네는 ‘최초의 악수’를 통해, ‘불수능’으로 인해 빚어진 좌절을 회복하고 있군.